

# 거미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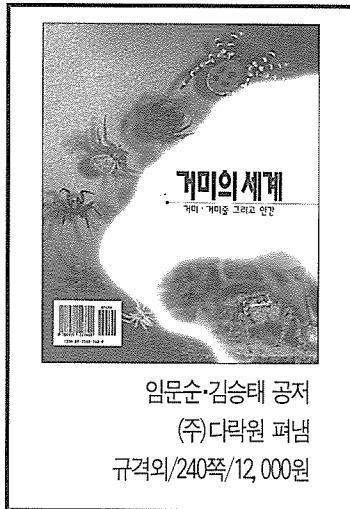
## 거미·거미줄 그리고 인간

전 세계에는 1백6개과 4만여종의 거미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만도 현재 46개과 6백2종의 거미가 서식하고 있다. 거미는 곤충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이 머리말에서 강조한 것처럼 거미가 갖는 의미있는 역할은 생물 다양성 이외에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거미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중 그 균형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존재이다. 거미는 포식자로 살아있는 동물,

즉 곤충을 주 먹이로 삼는다. 먹이가 되는 곤충의 상당한 부분은 농작물과 가축,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만약 거미가 없다면 우리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농약을 뿌려야 하고 집 안에는 온갖 해충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저자들이 거미 연구에 거의 미치다시피 몰두하여 거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소개하고자 노력했던 발자취는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저자들은 거미 연구에 얽힌 그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머리말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간 전국을 안 다녀본 곳이 없다. 산으로 들로 해안으로 동굴로..... 산에서는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을 다녀야했고 길을 잃어버리기가 예사였다. 때로 인삼과 같은 농작물이 재배되는 장소의 거미를 조사하다 도둑으로 몰린 적도 있고, 동굴 속을 헤맬 때에는 두려움과 고독에 떨기도 했다. 유난히 해양조난사고가 많았던 해에 도서지방의 거미를 조사하기 위해 배를 탈 때에는 가족 생각도 났었다.'

지뢰밭이 많은 민통선 북방과 비무장지대 근처의 거미를 조사할 때에는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사실 거미 연구는 야외채집과 연구실에서의 연구가 병행되어 이루어지므로



그만큼 연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 책은 1장 날로 가까워지는 거미와 인간관계를 비롯하여 2장 거미에 얽힌 이야기들, 3장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4장 재미있는 모양의 거미들, 5장 거미 그물에 담긴 생명의 경이, 6장 거미의 삶과 죽음, 7장 거미의 독, 8장 거미의 사랑과 모성애, 9장 거미의 식성과 뛰어난 사냥술, 10장 거미의 적과 방어전략, 11장 거미의 채집과 보존 및 연구, 부록 우리나라의 거미일람으로 구성되

어 있다. 거미줄로 만든 천, 해충제거에 응용, 광고모델로 자주 등장, 일기에보하는 거미, 강철보다 강한 거미줄과 신비한 그물짜기, 거미는 겨울에도 쉬지 않는다.

아울러 잠복과 기습의 명수, 거미의 방어전략, 거미의 사랑과 모성애, 죽음보다 더한 수컷 거미의 사랑 등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쉽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거미의 분류로부터 시작하여 생태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초등학교생은 물론 일반인 및 대학원생들에게도 거미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 거미 46종을 비롯하여 1백50종의 거미의 천연색 사진을 실어 거미들의 모양, 생태적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거미와 관련된 용어해설 정리도 곁들이고 있다. 책의 부제처럼 '거미·거미줄 그리고 인간'의 연관선상에서 알고 보면 유익한 동물인 거미로부터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지혜를 얻고 우리 인간이 그들의 습성을 이용하는 면도 흥미있게 설명함으로써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 대학생,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리라 믿어진다. ④7

朴澤奎(건국대 이과대 화학과 교수)